

군산, 체류형 대표 관광지 도약 박차

‘금강권 전시장 통합 운영’ 관람객 증가율 보여

군산시가 근대역사박물관과 금강권 전시장인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체만식문화관, 금강철새조망대를 연계한 전국 최고의 근대박물관 및 체류형 대표 관광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강권 전시장 통합 운영’은 올해 초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체만식문화관, 금강철새조망대 시설이 박물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박물관과 전시 시설의 연계 운영을 통해 기능과 역할이 약화된 이들 시설의 재생을 추진하고, 군산 관광의 영역을 동부권으로 확장에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통합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은 일

정관 하나로, 박물관 벨트화 지역(박물관, 근대 미술관, 근대 건축관, 진포 해양테마공원)을 출발해 경암동 철길 마을,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체만식문화관, 금강철새조망대까지 선순환 관광을 할 수 있다.

본 운영에 앞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박물관은 시범운영기간 철새조망대의 경우 지난해 대비 100%의 관람객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각 시설물의 기본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관람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합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강권 투어미션은 근대역사박물관

및 벨트화지역의 스탬프투어를 완료하고 금강권 시설을 방문해 태극기 바람개비와 함께 사진 찍기, 독립운동가에게 편지 보내기, 퀴즈풀기, 솜새 캐릭터와 함께 사진 촬영하기 등의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물관은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5,000원 이상 입장권을 구입하고 금강철새조망대를 방문하면 입장권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다.

이는 군산 지역의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지역 상가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박물관은 이번 통합운영으로 연 평균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박물관 입장

객 중 2~30만명이 금강권 전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군산 관광의 축이 동부권으로까지 확대돼, 군산이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일원과 동부권, 고군산지역까지 아우르는 역사, 문화, 생태, 자연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금강권 전시장 재생사업으로 동부권으로 확대돼 거듭나길 바란다”며 “전국 최고의 근대문화 유산과 금강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시의 강점을 살려 근대역사박물관을 거점으로 관광산업화에 노력함으로써 자립도시 군산건설을 이룩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원광대,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내 WM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2018학년도 후기 졸업생들에게 학위기를 전달하고, 졸업생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허종규 원광학원 이사장과 박맹수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56명, 석사 155명, 학사 453명 등 총 664명에게 학위가 수여됐으며, 7학기 만에 조기졸업을 하는 주영민(사학

과) 학생이 평균 평점 4.5 만점에 4.49점을 기록해 학업최우등으로 총장상을 받고, 김대훈(전자공학과), 최규상(경영학부), 정운정(복지보건학부), 장현진(영어영문학과), 최정은(생명과학부) 학생 등 5명이 MIND역량상을 수상했다.

박맹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온 우주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우주가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 있다는 자각”이라며, “이 진리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그 어떤 난관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청소년정책 발굴’ 박차

민관협의회사 연구용역·청소년 참여예산제 등 논의

익산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20일 운영속 시의회 부의장과 김수연 시의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장, 청소년기관·단체 관계자, 청소년 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정책 민관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9월부터 추진되는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지역 청소년의 기본 환경 현황과

실태, 욕구조사 방향성 등을 담기위한 논의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11월에는 참여예산제를 잘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청소년정책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청소년정책 민관협의회는 익산시만의 특색 있는 청소년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됐고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구성 이후 민관협의회는 서울 송파구의 청소년센터와 청소년 휴카페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중장기 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가장 중요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용주 복지국장은 “청소년이 행복해야 익산의 미래도 밝다”며 “청소년의 일상이 늘 행복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익산시, 9월부터 서비스 이용

익산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모바일 이용편의를 위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라북도, (주)KT와 협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전체 164대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구축한다.

시는 지난 3월 1차로 시내버스 60대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구축해 현재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나머지 104대 버스에는 이달 중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부터는 전체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존 공공시설과 관광지 위주로 제공했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내버스까지 확대돼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개인 휴대폰 무선 네트워크 설정에서 “Public Wifi@BUS_Free”식별자(SSID)를 확인 접속해 고품질 기가급(Gbps) 속도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가계통신비 부담해소와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 등에 공공 와이파이 지역을 올해 말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산=장인현 기자



군산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국내외 역사문화탐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군산시,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마무리

관내 고등학생 대상

군산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국내외 역사문화탐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국내·외 견문을 넓히고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를 위해 처음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거쳐 196명(국내3개팀, 국외3개팀)을 대상으로 여행안전수칙, 상세일정,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지난 달 6일부터 시작해 이번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강민준)이 주최한 이번 역사탐방은 주관 단체인 군산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군산대학교 인문산학협력센터, 국제교류원,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1318해피존행복스케치, 각 고등학교 및 학부모가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운영지원 등 강한 결속력으로 펼쳐 역사문화탐방을 떠남에 있어 부족함 없도록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국외 탐방은 중국 2개팀, 일본 1개팀으로 지난 7월6일부터 7월20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중국 산둥, 청도 탐방에서는 우리나라와 연계된 중국의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중국 청도의 발전한 현재 모습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

다음으로 ‘조선통신사의 자취를 찾다’라는 주제로 떠난 일본의 시모노세키, 오사카, 오가키 문화탐방을 통해 근현대 역사 유적지를 탐방했다.

국내 탐방 3개팀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지역 농산물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 행사

육구RPC 친환경 쌀 도정 과정·관리 과정 등 견학

군산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농촌체험행사가 열려 대도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시 농업기술센터는 군산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대도시 소비자층을 초청 농촌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한 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으로 서대문구아이들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유해물질로부터 사전 차단해 안

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 단체다.

방문단은 육구의 넓고 깨끗한 들녘에서 자라고 있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방문해 일반쌀과 친환경쌀의 생육과 관리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육구RPC를 방문 친환경 쌀 도정 과정과 관리 과정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 갖았다.

또한 지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군산시의 역사와 쌀 수탈의 아픔을

담은 근대역사박물관을 방문하고, 농민들이 재배한 쌀로 전통떡거리인 모싯잎 송편을 만드는 체험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서대문구 소비자 초청단은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과정이 농부님들의 열정과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농촌체험행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영업 농산물 유통과장은 “대도시 소비자초청 체험행사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성을 알리고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